

<p>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시122:2)</p>	<h2 style="color: red;">성지에서 온 편지 (115)</h2> <p>9753546 71/21 st. Hel Ha Avir Pisgat Ze'ev Jerusalem Israel</p> <p>Tel: 972-054-317-2752, E-Mail: <a href="mailto:rassvet1948@hotmail.com">rassvet1948@hotmail.com</a></p> <p>블로그: <a href="http://blog.naver.com/rassvet">http://blog.naver.com/rassvet</a></p>	
---	--	---

안녕하세요!

금년 4월 19일 이스라엘은 70주년 독립 기념일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환희를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8월 15일 이스라엘처럼 기뻐하길 바랍니다.

### 가족 소식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장가 갑니다.  
오는 6월 16일 새 가정을 이룹니다.  
저희들은 5월말 경 입국할 예정입니다.  
**주께서 한길의 혼인식을 축복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림 1 예루살렘의 가든 톨에서 부활절 예배

### 교회 소식

1. 드디어 협력할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르호봇'이라는 해안 도시에  
러시아 계 메시아닉 주 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침례교회를 연상시키는 예배 분위기가 우리를 끌어들이었습니다.

2주 정도 출석하자 한 형제가 저희들을 자신의 가정으로 초청했고  
담임목사도 저희들에게 다가와 동역을 요청했습니다.  
서로의 이해를 위해 러시아에서의 사역을 저희들은 짝막하게 소개했습니다.

교인은 약 100명 되고 자기 건물에서 모입니다.  
구역에 편입되어 성도들과도 교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다릅니다.  
이곳에서 담임목사 사역은 기대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법적으로 다른 민족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로서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 2 르호봇의 은혜연합 교회

2. 임월조 선교사는 한국인이 이곳에 세운 NGO단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랍 학교들, 이곳 저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정착촌들과 아랍인 과부를 돕는 센터를 방문하며 한국 종이 공예를 가르칩니다. 대단히 좋아합니다.

특히 유대인 정착촌은 외국의 유대인들의 귀환을 돕는 '쥬이쉬 에이전시'(Jewish agency)에 속한 곳들로 이미 온 이주자들의 정착을 도울 목적으로 이스라엘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한 동안 이곳에 사는 이주민의 자녀들에게 종이 접기를 가르칩니다.



그림 3 아랍학교 중학교에서

이를 위해 북부, 중부와 남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 편성이 의무적이라 지도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항상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함으로 건강 축복도 필요합니다. **주께서 임월조 선교사의 출입과 가르침을 축복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현지 소식: 초대교회의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의 남부에 위치한 헤브론 밑의 수시아(Susya)라는 곳에 주후 4-8세기 경 세워진 오래된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안에 지성소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림 4 예수아라는 모자이크

회당 입구의 오른 쪽에 아랍어로 '예수아'라는 단어가 모자이크로 새겨져 있습니다. 주변에 탈출을 위한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도 지하에 있습니다.

지성소의 모형은 이곳 신자들 중에 제사장 가문 출신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아'라는 단어는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동굴들과 지하 시설들은 이들이 숨어서 신앙 공동체 삶을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오늘날 이곳 유대인 공동체는 이곳이 정통 유대인 회당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회당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초대교회의 역사적 흔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회당은 지금까지 이곳 이외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곳에 기독교 유대인 공동체가 출발했을까? 이 회당은 주후 70년 2차 성전 파괴 이전 예루살렘을 탈출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세웠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래의 성구들이 이를 증언한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 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눅19:43-44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눅21:20-24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행6:7절)



그림 5 2성전 파괴

제 2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전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대부분 탈출했습니다.

사울의 핍박 때문(행8-9장)과 예수님의 예언 덕분이었습니다.

제 1차 유대인 반란 사건(주후 66-73년) 당시 68년

로마 군대는 반란을 거의 진압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의 갑작스런 자살로 인해 로마 군단이 갑자기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 덕분에 1년 반 동안 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을 믿은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때를 이용하여 대부분 예루살렘을 탈출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독립 투쟁을 하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뿔뿔 뭉쳐 남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주후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멸망 당했습니다.

100만 명 가량 죽었습니다.

약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 노동자로서 로마의 콜로세움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성전을 탈출한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사장들과 함께 '수시아'로 몰래 들어와 신앙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물론 이들은 처음 지하 동굴에 숨어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수가 점점 늘었고 주후 4세기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약 3천명 가량의 주민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비잔틴 시대 이들은 정교한 회당과 주변에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7세기 무슬림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11세기 십자군 운동을 잠시 회복되었지만  
12세기 무슬림의 점령으로 이곳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1980년대 발굴된 후 오늘날과 같이 가치 높은 고고학적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수시아는 유대인로만 구성된 초대교회의 역사적 흔적을 증언합니다.  
이들이 오늘날 '메시아닉 쥬'의 원조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서구의 기독교인들이 이곳을 많이 방문합니다.  
한국 교회와 신자들도 이곳을 방문하여 초대교회의 역사적 흔적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와 유사한 신앙 공동체는 터키의 갑파도기야와 로마의 카타콤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나 수시아가 카타콤의 원조입니다.  
성지 순례의 필수 코스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 자세한 정보를 원한다면 <https://blog.naver.com/rassvet/221252510252>**

2018년 4월 20일  
장창수/임월조 선교사

**\*기도 제목**

1. 러시아의 4 교회들 - 라스베트, 까멘스까야, 크라스노옉스까와 터넬 - 을 위해...
2. 새로운 교회와의 동역을 위해...
3. 아들 장 한길의 결혼을 위해...
4. 재정 후원의 증가를 위해...
5. 강건함으로 현지 적응 잘 하도록...